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월 26일(일) 제1526호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춘천새순교회 장로들이 임용성 목사에게 안수기도 하고있다(왼쪽), 춘천새순교회 전경(오른쪽).

온누리교회와 춘천새순교회 형제교회 됐다!

춘천새순교회 AMA 형제교회 협약식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임용성 목사 취임 ...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춘천새순교회 성도 참석

온누리교회와 춘천새순교회가 형제교회가 됐다. 지난 1월 19일(일) 춘천새순교회에서 '새순교회 AMA 형제교회 협약식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1998년 12월 창립한 춘천새순교회와 온누리교회가 AMA(Acts29 Mission Alliance) 협약을 맺고 선교에 대한 더 큰 열정을 품고, Acts29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

AMA(Acts29 Mission Alliance)는 Acts29

비전 성취를 위한 협의체이자 사도행전적 교회개혁 운동이다. 온누리교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지만 독립된 교회이다(온누리교회 정관 제23조).

춘천새순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이하 취임예배)도 드렸다. 서산온누리교회를 섬기던 임용성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취임예배는 오후 7시 춘천새순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춘천새순교회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예배에서는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서산온누리교회 주소리찬영사역팀 특송,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임용성 목사 취임 인사, 박종길 목사 안수기도,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사람 낚는 어부'

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님도 두 제자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춘천새순교회가 처음 창립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용성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귀한 비전,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겠다"면서 "춘천새순교회가 지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온 누리까지 퍼져 나가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1월 25일~2월 3일 '이주민 설 집회' 개최

온누리M미션, 국가별, 민족별 예배와 교제, 아웃리치

온누리M미션이 개최하는 '2025 이주민 설 집회'가 1월 25일(토)부터 2월 3일(월)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각 지역 M센터에서 막 오른다. 올해 이주민 설 집회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아랍,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공동체 이주민 4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별, 민족별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아웃리치를 간다.

포문은 안산 캄보디아예배가 연다. 1월 25-28일 영종온누리교회 M하우스에서 집회를 한다. 1월 28일에는 서빙고 네팔예배 군포 하나로 복지재단, 안산 미얀마예배 미얀마 쉼터, 안산 스리랑카예배 안산M센터 및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안산 안디옥교회 대관령 양떼목장 및 정동진 아웃리치를 간다. 1월 28-29일에는 안산 필리핀예배 안산M센터 지하 1층, 안산 네팔예배 대부도 펜션 수가사에서 예배를 드린다. 1월 28-30일에는 몽골예배 연합파주 영산수련원, 안산 태국예배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집회를 한다. 1월 29-30에는 군산M센터 강화도 및 서울 경복궁, 안산 인도네시아예배 경기도 가평에서 캠프를 한다. 마지막 행사는 남양주 캄보디아예배다. 1월 30일~2월 3일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간다.

이주민 설 집회를 위한 후원을 받는다.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은 성도들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810031-746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각 공동체 담당자 및 문의, 기도제목은 QR 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완 목사(온누리M센터)는 "급등한 환율, 사기, 취업난 등으로 이주민들이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주민들이 이번 '이주민 설 집회'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힘과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홍하영 기자



'명절 신앙 갈등' 해결하는 방법

CGN 신앙 회복 프로젝트 '너답게' 설날 특집편 방영

CGN 신앙 회복 프로젝트 '너답게(21편)'가 설날 특집편을 방영한다. 1월 28일(화) 오전 11시 50분 CGN 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1월 28일(일) 기독교 OTT '풍당'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너답게' 설날 특집편에서는 명절 신앙 갈등을 다룬다. 제사 음식 준비에 참여해도 되는

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등 제사로 인한 갈등부터 집안의 1대 크리스천이 신앙 없는 가족들과 겪는 종교 분쟁까지 크리스천들이 명절마다 마주하는 문제를 다룬다. 크리스천들이 명절 신앙 갈등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가 출연한다.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10월까지 6개 반 운영

2025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말부터 10월까지 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수원 저녁반, 부천 주간반을 운영한다(일정 및 문의는 QR 참고).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2월 9일까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

상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증명사진 2매와 함께 캠퍼스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70만 원(전도여행비 별도).

예수제자학교(JDS)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평신도 제자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6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 홍하영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 덕에 로마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원조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황제 숭배와 신전 건축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로 부를 가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86세임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교회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인 빌라델비아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교회가 받은 칭찬

서머나교회는 그들이 많은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8-9절).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너희는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입니까? 부와 사치와 문화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음란과 우상숭배와 탐욕의 악취가 났습니다. 분열과 음모가 난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아니라 중심과 의도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칭송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지는 심판을 보십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3)-서머나교회

요한계시록 2:8~11

“서머나교회 같이 어린양 예수님을 따라가며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을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교회는 로마의 황제숭배를 거절한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땅에서 환란과 궁핍을 겪었지만 굴복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진리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는 박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고후 6:9-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라면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함을 갖고, 복음과 십자가와 부르심의 사명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바울과 서머나교회가 보여주는 칭찬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이제 고난과 환란과 가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10일 동안이라고 하셨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의미를 갖습니다(10-11절).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단 1:14-15).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고난을 당한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환란, 믿음을 가진 성도를 향한 핍박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 박해, 환란이 계속될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지나면 핍박

과 고난과 환란과 박해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환란의 날짜조차 줄여 주셔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환란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마 24:21-22).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대환난조차 하나님이 줄여 주십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을 줄여주십니다. 환란과 박해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안에서 이뤄집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시온산에 어린양과 함께 서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승리는 인내를 말하고, 인내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 즉 우리의 육체적 호흡이 끊어지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첫째 사망 이후에 있는 심판 앞에 불과 유향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바치는 충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숨까지 거는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양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박해와 궁핍한 삶으로 어

려운 서머나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은 춤을 추고 승리했다고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에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얻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영광이,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적인 정확한 번역은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그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월계관을 쓰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한다면 완주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쁜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딤후 4:7-8).

인내하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마 25:2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달란트, 부르심을 위해 서머나교회가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환란과 가난을 알지만 너는 실제로는 부자다. 고난을 당할테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고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서머나교회 같이 어린양 예수님을 따라가며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을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존재론과 인식론

무엇이 먼저인가?(존재인가? 인식인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익히 듣고 배웠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가 없는 복음서의 대표적 사건이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이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오병이어 기적은 소년의 자발성에 감동한 다수의 무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타인들과 나눠 먹으면서 생긴 사건이라고 한다. 성경의 무오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 독일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기적은 신성력의 과시가 아니라 언어화된 지령, 곧 상징”이라고 말했다.

같은 말씀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세계관 기본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관은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일련의 전제이다. ‘진정

한 최고의 실재는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론적 물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고 답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유물론, 진화론 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 애쓴다. 또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앎(지식)에 관한 질문의 인식론적인 접근은 그에 상응하는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계관에서 ‘존재론(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해)과 인식론(어떻게 앎을 얻는가에 대한 이해) 중에서 무엇이 우선되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각 세계관과 성경에 대한 견해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기독교의 근본적 세계관은 존재론적 기반 위에 형성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창 1:1)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 일부가 아니며, 오히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믿는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롬 1:19)는 말씀처럼 우리의 앎에 관한(인식론적인) 질문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본질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 철학자는

진리를 찾기 위한 극단적 의심을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물로 정립하고 있다. ‘진리를 사고하고 있는 나’를 통해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인식론을 존재론보다 우위에 두고,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결국, 인식론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진리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성경의 내용은 인간이 가진 경험적, 과학적, 이성적 틀 안에서 재해석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이 처한 현실, 과학적, 사회적인 수준 등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들의 이성적 논리에 의해 해석되게 된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부터 해방신학, 민중신학, 퀴어신학 등의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식론이 존재론보다 우선되는 세계관을 갖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론이 우선되면 초자연적 사건(예: 예수의 부활, 기적 등)을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석해 성경의 초월적 성격을 약화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축소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

가 약화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라는 말씀을 부인하고, 성경을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로 간주하게 된다. 성경의 핵심 교리나 가르침이 선택적으로 수용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커진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과 초자연적 요소가 상징적, 신화적으로만 이해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부활, 재림 등)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삶의 지침으로 축소될 수 있어서 본질이 훼손되고, 초자연적 구속 역사에 대한 믿음을 약화할 수 있다. 인식론이 존재론보다 앞설 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성경의 초월성과 권위가 훼손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존재론이 인식론을 이끌어야 하고, 성경이 인간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



주성대 장로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동대문중앙광동체)

특별기고

기적에 대한 믿음의 증가와 그 이유

통계학자 라이언 버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물질주의적 신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적에 대한 믿음이 증가했다. 1991년에는 학사 학위를 가진 미국인의 45%만이 기적을 “확실히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일반 사회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2018년까지 63%로 증가했다. 대학원 수준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 변화는 더 극적이었다. 1991년에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기적을 믿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그 비율이 61%로 급증했다. 교육이 더는 초자연 현상을 믿지 않게 만들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다. 사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큼 기적을 믿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놀라운 수치는 서구 세속 사회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예측했던 내용은 기술의 성장과 확장이 사람들을 더욱 세속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더 세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신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믿음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 수치는 버지가 ‘비종교적’이라고 부르는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대규모

탈종교화’ 조차 무신론으로 대량 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명백한 모순을 이해하려면 ‘세속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지 않듯이,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해서 종교적 부흥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도타트는 “대학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표적과 기적’에 대한 유연한 반응은 단순히 초자연주의의 일반적인 회복력을 반영하는 것뿐”이라고 시사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다. 즉, 세속적 영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일 수 있다.

20세기 중반, 저명한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세속화 이론’을 제언했다. 그는 사회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으로 추측했다. 그 대신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세속주의가 자리 잡는다고 예측했다. 수십 년 이후 버거는 종교의 회복력을 인정하면서 이 가설을 포기했다. 예를 들어 세계에 종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많아졌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3.8%를 차지할 거로 예상했

다. 무신론과 비종교인은 세계 인구의 비율로 볼 때 감소하고 있다.

서구는 예외적이다. 그러나 버거가 포기했던 그의 가설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25년 전 또 다른 관찰자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형태는 다윈주의적 물질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이 세상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라고 했다. 크레이그 게이 박사는 <현대 세계의 길(The Way of the Modern World)>에서 현대적이고 소비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세계는 다른 모든 가치보다 편리함, 통제력, 선택권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영성을 원할 수 있지만, 접근 방식은 성경이나 전통, 신조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쇼핑이나 뷔페를 모방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서양은 기술, 정치, 또는 그 밖의 어떤 것보다 영성에 대해 더욱 세속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중앙아메리카에서 아야와스카(ayahuasca, 종교적 환각제)를 마시며 휴가를 보내는 미국의 사무직 종사자들을 묘사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성 관광은 큰 사업이고, 흠비대에 앉아서 환각제 때문에 격하게 토하는 관광객들의 턱을 현지 가이드가 닦아주는 장면을 보면서 관광객들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내

는데 돈을 기꺼이 낼 의향이 있어 보인다. ‘영적 세속주의’ 또는 ‘세속적 영성주의’의 성장은 세속화 가설을 반증하지는 않지만, 이를 재구성한다. 분명히 말하면, 서구에서 등장한 영성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에서 예측한 비(非)영성과 거리가 멀다. 목적에 따라 짜 맞춰 접근하는 방식은 자신이 주인이고, 올바른 기술이 물리적 세계를 넘어 편리함과 통제력,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믿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유명한 전직 세속주의자들을 포함하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진리이며, 우주를 실제 지배하는 분을 찾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점점 인기를 얻는 세속적 영성 시장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명령할 수도 없는 힘에 지배당하는 이교도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기적에 대한 믿음이 증가한다는 것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뒤섞여 있다. 세속적 영성은 부흥과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세력들이 가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구해야 한다.

/ 존 스톤스트리트, 세인 모리스

원문: breakpoint(20250108)



노지형 목사
(충주로공동체)

2025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

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설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나누다면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격려’입니다. 이번 설에는 서로의 주장과 신념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위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파로 고통받고 있었던 고린도교회를 향해 위로는 필요함을 말하며, 이를 위해 ‘참된 위로’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선포합니다(고후 1:3~4a).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란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을 잃으신 사건’ (창 3:21) 이후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 받고 누리기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환란과 분열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위로의 은혜를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넘치는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견디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죄 사함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과거에도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끝까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 본받아 실천하기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의 삶을 본받아 서로 위로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행 4:36)와 ‘위로자’라는 뜻으로 그들과 함께 사역한 안디옥교회의 교사 마나엔(행 13:1) 같은 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보낸 간절한 기도(롬 15:5~6)를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에게서는 더는 헛된 마음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위로의 사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온전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위로를 마음껏 누린 다음 ‘서로 위로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복(福)’을 더 많은 영혼과 풍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행 9:31)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새413, 통470).....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3~11.....	가족 중에서
설교	서로 위로할 때 누리는 복(福).....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새419, 통478).....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서로 위로할 때 누리는 복(福)

현실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면 주변에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

로란 ‘고달픔을 풀도록 따뜻하게 어루만져 괴로움과 슬픔을 잊게 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선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진심으로 행할 때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위로와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17:1~2.....	다같이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새272, 통330).....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히브리서> 12:1~4.....	가족 중에서
설교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설교자
찬송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새458, 통513).....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새해를 맞아 가장 고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문득 ‘자유(自由)’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는 살아온 인생에서 절대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큰 아쉬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한 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진리가 너

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1~32).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인류는 거짓과 죄악에 얽매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거짓의 어두움과 싸워 이겨내는 진리의 빛’(고후 6:3~10)과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정결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히 10:12~22)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 승리 향해 달려가는 자유함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사 43:18~19a)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순간부터 ‘과거’가 아닌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앞에 놓여 있는 구체적인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거짓과 죄악과 싸워야 하는 힘든 것’이며, 이를 얻기 위해 ‘경주 중에 꺾여내야 할 수치와 핍박의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갈 때 오직 부활의 승리를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유함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을 닮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얻매고 있던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흘 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서 자칫 놀릴 수지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진정한 자유’를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부부’다. 우리는 부모 이전에 부부다. 가정의 근본이 되는 관계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다. 악한 영도 부부 사이를 호시탐탐 들여다보고 있다.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를 잘 세워야 한다.

부모들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자녀들은 많은 시간 부부 사이를 지켜보고 관찰한다. 자녀에게는 아주 따뜻하고 극진한데 부부 사이는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 불안을 경험한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자란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부부가 잘 사귀어야 한다. 결혼 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밀해지고, 잘 사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결혼하면 노력이 사라진다. 더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노력이 전부 자녀를 향하게 된다. 서로를 향하던 에너지가 자녀에게 향하는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모습이다. 결혼한 이후에도 가장 먼저 배우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잘 사귀어야 한다.

둘째, 셋이 살아야 한다. 남편과 아내 둘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셋이 살아야 한다.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쭙보고 의지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할 때 가정에 그분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된다.

셋째, 노력해야 한다. 부부는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부부 사이의 작은 균열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되기도 한다. 부부 사이의 작은 균열은 ‘자존심’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 자존심 싸움하느라 가정이라는 독에 금이 간다.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기 싫어서 문제를 크게 키울 때도 있다. 부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친밀감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 정서적 대화를 해야 한다. 부부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이야기, 자녀 양육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대화 필요하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점에 끌렸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이 남아 있는지, 변화된 모습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해야 한다. 가장 정서적인 대화는 부부의 스킨십이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성관계 횟수가 줄어드는 부부가 많다. 그런데 성관계는 부부의 친밀한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 많은 부부가 더 깊은 정서적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둘째, 배우자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많은 가정이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 자녀들은 엄마만큼 아빠를 자주 볼 수 없다. 그만큼 자녀와 아빠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생길 수 있다. 그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빠의 수고와 헌신을 이야기해줘야 한다. 아이들이 아빠의 자리를 무겁고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운동화를 사줄 때도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운동화를 사주는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때 아빠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운동화는 아빠가 우리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는 거야. 아빠가 오시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하자”라고 말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왜 맨날 엄마가 먼저 시작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 여자가 관계를 더 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파스한 감성과 부드러운 성품, 뛰어난 소통 기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을 여자가 먼저 시작하면 문제가 부드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 해결 뒤에 남편이 더 큰 노력과 실천으로 갚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아빠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엄마는 반드시 더 커지는 엄마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 꼭 실천해 보기를 추천한다.

셋째, 성경적 관점으로 배우자를 바라봐야 한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한다(벧전 3:7). 깨어지지 않도록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도 연약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는 그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다. 부부가 서로를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 깨어질까 두려워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가정이 튼튼하게 설 수 있다.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보는 게 왜 필요한가? 성경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7)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부부와 그 가정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은혜가 차고 넘친다.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부부라는 것을 명심하자. 가정에서 아빠, 엄마로만 만나지 말고, 연애 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성애와 여성애로 만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룩한 순종의 부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과 순종을 배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7편 부모이기 전에 부부’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 작심삼일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월 19, 21일 본문 <요한복음> 6:11~21, 6:48~56

1. 예수님은 38년 된 한자를 고친 다음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일 정도로 큰 무리였어요.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음식으로 그 사람들을 모두 먹이셨어요. 소년이 가져왔던 음식은 무엇일까요?(<요한복음> 6:11~21)

- 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세 마리
- ② 보리떡 세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
- ③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④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

2.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말씀을 읽고 틀린 내용을 골라 보세요(<요한복음> 6:48~56).

- ① 생명의 빵 ② 참된 양식 ③ 만나와 메추라기 ④ 참된 음료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느 쪽 사람일까? 예수님은 나를 어느 쪽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나는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하고, 오패랑 싸운 적이 있다. 그렇지만 매일 QT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노력한다. 또 전도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중간인 것 같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많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을 것 같다.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람도 많이 만들 것 같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등장하는데, 나는 거기서 ‘레이첼’이라는 인물이 가장 좋았다. 착하고, 예쁘고, 상냥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에서도 많은 사람이 레이첼을 좋아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사람들도 레이첼의 찬송을 들으면 조용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조용해질까?

이 책에는 레이첼의 친구 버지니아도 등장한다. 버지니아가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로린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와 간호했다. 그 덕에 로린은 건강을 회복했다. 그 이후 로린은 버지니아를 잘 따랐다. 어느 날 버지니아와 로린이 길을 가다가 술에 취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이 버지니아를 향해 술병을 던졌는데 로린이 대신 맞았다. 그 일로 로린이 죽었고 버지니아가 굉장히 슬퍼했다. 나도 너무 슬펐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어도 술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예수님이라도 레이첼과 버지니아를 좋아할 것 같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기 때문이다. 나도 레이첼과 버지니아처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길 거다.

황한나 학생
(서빙고 유년3부)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온누리와 함께 전도합시다!”

전도사역본부가 알려주는 ‘전도, A부터 Z까지’

새해에는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새해 다짐으로 운동도 좋고, 외국어 공부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 동역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실천해야 수월하다. <온누리신문>에서 새 힘을 얻는 신앙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그 두 번째 순서는 '전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런데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성도들에게 전도에 관한 모든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새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

온누리교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전도 방법을 알려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는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다. ‘온누리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이 대표적이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5분 전도’ 방법을 훈련한다. 전도대



지난해 10월 열린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족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상자와 상황에 맞춰 접촉점을 찾고, 복음메시지 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전도폭발훈련’은 전문 전도사역자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전도가 생활화된 전도사역자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학기별 한 단계씩 총 2년이 소요된다.

전도 도와줍니다! ‘전도콜센터’

“전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을 이뤄주는 곳이 ‘전도콜센터’다. 전도콜센터는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는다. 전도콜센터(02-3215-3377)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문 전도사역자들이 달려간다. 여러 이유로 직접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도사역자들이 대신 전도해준다. 전도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홍보관 앞에서 ‘전도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전도콜센터에는 전문적인 훈련과 실습을 수료한 전문 전도사역자들이 상주한다. 전문 전도사역자를 육성하고, 전도지, 전도 용품과 영상 등을 개발 및 보급하는 일도 한다. 농어촌사역, 이주민사역, 타 교회 및 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전문 전도사역자를 파송하고 지원한다.

새신자들을 위한 ‘맞춤형 예배’와 ‘맞춤전도집회’

온누리교회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전도대상자, 교회에 적응하고 있는 새신자들을 위한 맞춤형 예배(열린새신자예배)와 맞춤전도집회도 개최하고 있다.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새신자와 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설교도 쉽고 재미있게 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특정 대상자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맞춤전도집회’는 온누리교회의 상징적인 전도 방법이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전도대상자들의 직업과 나이, 특성 등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전도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남성, 여성, 의사, 교사, 군장교, 65세 이상 부모, 2030자녀 등을 대상으로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해외 선교지에서 맞춤전도집회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공동체별로 ‘열린순예배’도 드린다. 순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이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과 동료 등을 초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맛보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전도집회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전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도사역본부 각 사역 일정 및 문의처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역칼럼



장경문 장로
(양천공동체, 온누리 전도학교 강사)

“나 주님의 기쁨 되 기원하네♪”
지난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평소 내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흘러나왔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문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다(행 1:8). 이처럼 영혼 구원(전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이유다.

전도는 하나님에게만 기쁨일까? 그렇지 않다. 전도자에게도 유익이다. 무언가를 바라고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보너스 선물을 주신다. 전도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을 소개한다.

첫째, 하나님이 전도자인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다음 교회에 가기로 다짐하는 순간, 전도자의 마음에 생기는 기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

둘째, 전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끈이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날마다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갈 수는 없다. 어떨 때는 신앙이 약해져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그때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전도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해주신다.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다(마 28:20).

넷째, 하나님이 전도자를 돌보신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전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 6:33).

전도는 낚시와 같다. 낚시하다 보면 물고기가 곧 잡힐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낚시밥만 먹고 가는 물고기도 있다. 낚시대를 올리는데 빠져나가는 물고기도 있다. 어부 베드로도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눅 5:6). 전도 역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

을 향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필자가 속한 다락방에서 ‘1다락방 1사역’으로 행복교회를 섬기고 있다. 행복교회는 지난해 5월 목사님 가족으로만 시작한 개척교회다. 내 병원에서 멀리 않은 곳에 있어서 전도한 사람들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주 2명이 행복교회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지 않았다. 낚시대를 건져 올리는데 물고기가 빠져나간 것이다. 나는 이럴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성령님 함께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7명이 행복교회에 등록했다.

새해 1월도 지나간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전도자로 세워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감사와 찬송, 그리고 공동체

“일과 사람에 지쳐서 은혜의 감동을 잃고,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제가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일과 사람에게 지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질문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질문자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크리스천들이 은혜의 감동을 잃고, 부정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큰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피해 광야로 들어간다. 그러다 로렘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엘리야를 만지며 깨우고, 준비해 놓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한다. 엘리야는 로렘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했다.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진짜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었다. ‘이 정도로 힘들고 두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의미였다. 힘든 시간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신다는 확신이다. 이 확신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하는 게 회복을 위한 시작이다.

둘째, 지치고 부정적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

셋째,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시 119:165).

지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다. 감사와 찬양은 감사할 일과 찬송할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시며 모든 순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고백할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대하자.

다섯째, 신앙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가족 됨을 누릴 수 있다. 칼뱅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고 했다. 신앙공동체에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스함이 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회복하기를 바란다. 기도와 성경, 감사와 찬송,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신경훈 목사
(갈렘청년부)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눅 24:36).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지치고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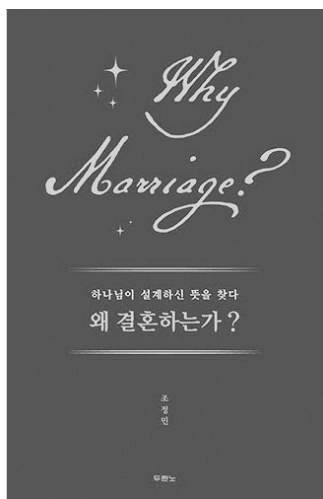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 말씀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를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의 상황에 놓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넷째, 그럼에도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것이다.

두란노 신간

결혼,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

말씀으로 배우는 ‘건강한 성’

기도가 인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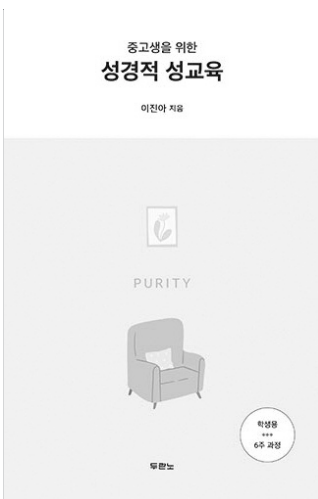
〈왜 결혼하는가?〉
조정민 저 | 두란노 | 13,000원

〈왜 결혼하는가?〉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 부부 관계,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다. 사탄이 숨 돌릴 틈 없이 공격해 올지라도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된 가정이 아름답게 익어 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결혼생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사랑을 배우며 진짜 어른이 되어 간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 책의 저자 조정민 목사는 부부 관계는 우리가 어른스러워지느냐 혹은 미숙한 존재로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훈련장이라고 말한다. 부부가 서로를 온전히 인정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중고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이진아 저 | 두란노 | 17,000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준다.

저자 이진아 전도사는 수년 동안 다음세대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쳤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하고 있다.

〈중고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은 성에 관심 많은 중고생들이 성경적 성교육을 바탕으로 밝고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도록 도와준다.

세상 가치관이 홍수처럼 다음세대에게 물려오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무분별하게 세속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성경적으로 교육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중고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기본 질서로 돌아가는 훈련 과정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순결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장 위대한 일)〉
이규현 저 | 두란노 | 13,000원

〈기도(가장 위대한 일)〉는 이규현 목사가 수영로교회에서 선포한 말씀을 정리했다. ‘기도에 대해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등 기도에 관한 독자들의 수많은 궁금증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기도의 통로가 막힌 성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10년, 2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가 뭔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필요만을 독백하듯 중얼거리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친밀한 관계를 맺는 수단이다. 기도는 꿈이고, 환상이고, 미래이고, 다가올 현실이다. 인생은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다. 따라서 인생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려면 기도해야 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전 8:4)

설 명절이나 추석이 오면 각 가정에서 제사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모처럼 한 가족이 마주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제사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인으로서 제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70% 이상이 제사와 차례를 중요시한다고 하니 명절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제사를 거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그것은 제사를 단순한 예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교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조상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인과응보로 가정에 우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제사 문제란 부모 공경을 넘어서 잘못된 무속신앙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무속신앙은 부모와 조상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신으로 변화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가르친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것도 조상신을 달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 문제에 대해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물질세계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조상신의 진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쩌면 신약시대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도 제사 문제에 대해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모든 고기를 제사 후에 일반시장에 유통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성도들은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고, 고기를 사 먹는 자들은 ‘배교자’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생각을 복음 안에서 단호히 배격했다. 성경적이지 않고 매우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비판한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기는 고기일 뿐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어떤 이들이 고기를 먹는다면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라면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기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은 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첫째, 절하지 않거나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효(孝)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출 20:4, 엡 6:1~2).

둘째, 조상을 공경하는 것과 조상을 신으로 예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부모를 섬기고 효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교를 종교로 대체해 조상신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은 반성경적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가족을 더 잘 섬겨야 하고, 나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이를테면 명절날 가족 모임에 더 일찍 참석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도 가족 모임을 앞장서서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명절날 제사와 절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유교 문화도 존중하지만, 기독교 문화도 존중해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사 대신 추도, 추모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게 권면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가족 모임에서 제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일 것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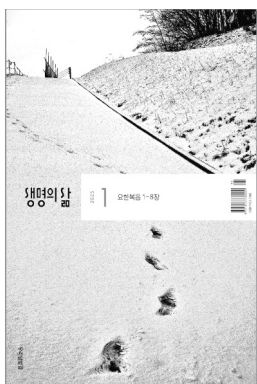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1월 27일~2월 2일까지
〈요한복음〉 7:53~9:34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은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이시다. 그분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참 빛이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한 여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초막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묵상하자.



▶종교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다. 모세의 법대로라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으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한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 인임을 상기시킨다.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여자만 남는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하고,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시기에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므로 그분이 함께하신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하고 만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영원한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기원을 어떻게 변론하시는지 묵상하자.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이며,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거할 수 없다. 죄의 종에게 아버지는 마귀이기에 욕심대로 행하며 거짓을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며 반문한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신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여겨 돌로 치려 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맏인 된 사람의 치유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이신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해 형식화된 종교 생활에 도전하신다. 능력을 행하시며 바른 신앙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자.

▶날 때부터 맏인 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그

렇게 되었느냐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진흙을 침에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온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치유를 문제 삼아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는 맹인의 고백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며 그를 쫓아낸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허물이 있는 지체를 향한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의 빛이 나의 내면을 충만히 비추어 주시도록,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간구하자.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자. ▶예수님을 믿은 이후 밝은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시각을 바꾸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온 지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난해를 돌아봤더니 힘겹고 견뎌야 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소중한 열매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두 친구 R과 L이 제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R과 3주 전부터 예배 이후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R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L은 교회에 처음 온 날 찬양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립니다. 예수님이 L을 찾아가시고, گوش에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우상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시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1년 FA 단기사역자로 간 소아시아에서 만난 M을 다시 만났습니다. M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지난해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삶이 고단한 상황입니다. M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큐티와 통독, 기도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에 기쁨 부으심을 받고, 마음이 열려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방향을 알려주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사역자

CGN 미주지사 선교 다큐멘터리 ‘미션로그’ 제작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CGN TV에서 첫 방송

CGN 미주지사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미션로그’를 제작했다.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 기도가 담긴 이야기다. 1월 26일(일) 오전 10시 30분 CGN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CGN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미션로그’ 첫 번째 주인공은 미국 애리조나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14년째 사역 중인 황성기 선교사(나바호교회 담임)다. 황 선교사는 대형교회 선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애리조나 사막 나바호 원주민에게로 향했다. 교회 창고의 작은방에서 생활하며 성도들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다. 장작을 때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을 위해 벌목과 장작 나눔



을 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등 성도들의 불편을 받 벗고 나서 해결하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지만, 오늘도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황성기 선교사의 사역과 은혜, 간증을 소개한다.

CGN ‘고고 바이블 송’ 음원 발매

성경의 주요 사건 노래로 만드는 프로그램

CGN이 제작한 어린이를 위한 성경 콘텐츠 ‘고고 바이블 송’ 음원을 발매했다. ‘고고 바이블 송’은 천지 창조,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등 성경의 주요 사건을 노래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미취학 아동들이

성경을 친숙하고 쉽게 배우도록 제작했다.

‘고고 바이블 송’ 음원은 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 뮤직, 멜론, 바이브, 플로, 벅스 등)에 공개했다. 교회학교나 그룹 모임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록 OTT ‘풍당’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GP)’ 개강

3월 11일~4월 29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nnuri Gospel Project 이하 OGP)가 개강한다. ‘신약1권 (위대한 복음)’을 주제로 3월 11일에서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20일까지

nuri.org)에서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3714-3489

아이스쿨(<https://ischoolion>)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생명의 삶〉대청판 정기 구독 신청

2월 16일까지 온라인, 1년 구독료 20% 할인

두란노서원에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전용 〈생명의 삶〉정기 구독 신청을 받는다. 2월 16일(일)까지 두란노서원 정기구독센터 홈페이지(QR코드 참고)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도 있다. 〈생명의 삶〉대청판 1년 구독하면 구독료(6만 원) 20% 할인을 해준다. 두플러스 스마트플랜 3개월 무료 이용 쿠폰도 제공한다. 추천을 통해 구독자 20명에게 도서 2종(《비울로부터》, 《탐켄러,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선물한다.



부모님과 함께 심는 믿음의 씨앗!

양재 샤이닝키즈, 꿈아이놀이터 참가자 모집

양재 ‘샤이닝키즈’와 ‘꿈아이놀이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양재 샤이닝키즈는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재 꿈아이놀이터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6~7세 유아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QR코드 참고). 1월 26일 오후 4시부터 40명 선착순 모집한다.

양재 꿈아이놀이터는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재 샤이닝홀에서 열린다. 대상은 24~40개월 영아다.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샤이닝키즈 010-3291-9090
꿈아이놀이터 010-4414-2668



일하세 아카데미 22기 참가자 모집

2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신동아 311호

일하세 아카데미 2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5주 동안 ‘일터에서 성공하기’를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앞 신동아쇼핑센터 311호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이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일하세 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일터신앙’,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그리스도인의 성공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주제별 그룹 활동과 사례공유 등도 한다. 문의: 010-6321-9522



NGO 더멋진세상, 코트디부아르에서 IT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해 ‘청소년 IT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코트디부아르 50여 개 중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을 모집해서 영상 활용 방법을 교육했다. 이번에 제작한 IT 교육 콘텐츠는 UI, UX,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등 6개 과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81시간 분량의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을 AI를 활용해서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상반기부터 코트디부아르 14개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5만 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공립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홍하영 기자

유튜브 영상스쿨 3월 14일 개강

5월 2일까지 매주 금 오전 10시 서빙고 한동홀

유튜브 영상스쿨이 3월 14일 개강한다. 5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DSLR 및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강신청

은 3월 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유튜브 영상스쿨에서는 카메라 사용법과 촬영기법, 영상제작 및 인터뷰 촬영 등의 기술을 알려준다. 문의: 02-3215-3667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1월 31일까지 서류 접수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서빙고, 양재)에서 오는 1월 31일(금)까지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 졸업증명서, 임상

경력증명서(면접 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만)이다. 비용은 한 학기당 50만 원. 총 2학기 진행된다. 매주 수퍼비전과 학기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와 2차 면접을 한다. 합격 여부는 개별 연락한다.

문의: 서빙고(02-793-2997), 양재(02-570-7536)

온누리장로합창단, 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온누리장로합창단과 온누리세라핌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은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1월 31일(금)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디션은 2월 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한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은 유소년 합창단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대상이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이거나 타 교회 성도도 지원할 수 있다. 오디션은 3월 2일(일) 오후 1시 15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한다.

문의: 010-5264-1191

(온누리장로합창단)

010-8285-64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말씀과 기도’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 제목 원고를 모집한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 원고를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1월 세례자

■서빙고	김희진 770418	나민을 안성경	황민준 230710	원주희 980314
왕유경 040226	박은주 561020	노혜윤 240812	황중현 김 란	이승찬 051008
이기범 790319	박해정 660206	노경한 성연경	황채원 210511	전요한 990405
임해경 800122	전미현 870121	신로빈 201111	황중현 김 란	천호영 040318
조만혁 881001	주지훈 050109	신경원 전미현	■대학청년	
유아	신로엘 220411	■여호수아	유나라 061010	
김시아 230610	강노아 230602	신경원 전미현	■SNS	
김의철 나혜린	강동구 오지희	신로은 190717	강동수 940713	
박선하 230616	김규민 240803	신경원 전미현	김윤진 941005	
박준형 윤여정	김동영 김동은	원혜나 240713	성지혜 980921	
박해인 210108	김연서 240610	원종민 정민선	■하늘	
박한영 김유리나	김종훈 이미정	이로이 220617	고승현 040209	
이소광 220324	김연준 221014	이승환 문현정	한지원 000630	
이종규 김현아	김종훈 이미정	이소나 211129	■입교	
한에서 221219	김은서 211103	이세빈 조수빈	이준희 011226	
한동철 조인영	김화평 정은혜	이현준 230607	■허브	
	김이소 221128	이향표 신주경	이지선 990921	
■양재	김현희 선임수	전노아 221109	장현우 050831	
김동영 911221	나예넌 230720	전종근 장현정	■입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한국어선교학교 수료 간증



/ 장명원 성도(양재공동체)

아내를 통해 한국어선교학교를 알았다. 지난해 초부터 아내가 매주 토요일 저녁 교회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왜 저걸 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나도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아내는 한국어선교학교를 마치자마자 매주 일요일 안산M센터에서 캄보디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했다. 너무 놀라 “당신, 우리 집에서 안산까지 얼마나 먼지 알아?”라고 물었다. 아내는 “글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순종해야지”라며 2시간 반 거리를 매주 씩씩하게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주일예배를 드리고 운전기사가 되어 아내를 태워다 주고 데려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는 이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쌓았다.

어느 날, 온누리M센터 임현주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연락하셨다. 조금 2반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남편과 함께 섬겨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다. 사실 예배 전 게시판에서 본 ‘한국어 선교학교 13기’ 모집 포스터가 눈에 아른거리고 있었던 터라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어선교학교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수업을 신청했었다.

교사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주민들과의 첫 번째 수업을 맞이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는 참패였다. 수업 중 말문이 막히기도 했고,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막막한 마음을 품고 한국어 선교학교 수업을 들었다. 한국어 선교의 필요성, 교사로서의 정체성, 문법과 발음 등의 수업이 실제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특히 문법 수업에서 의미를 추측할 수 있도록 강의해야 한다는 점이나 게임을 통해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바로 다음 날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효과도 매우 좋았다. 배움과 가르침을 동시에 하면서 많은 도전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어선교학교 수업을 듣고, 또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어떻게든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선교학교 13기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주민들을 잘 섬기고 싶다.

행복반 수료 간증



/ 오영무 형제(브릿지33+공동체)

‘행복반’에서 과거의 상처와 마주했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방관과 학대적인 언어로 인해 고통받으며 성장했다. 그로 인해 학창시절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냈고,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꼈다. 내 감정은 자주 폭발했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착각했다. 영화라는 도피처를 만나 영상물 앞에서 평안을 찾고, 인생을 배웠다. 하지만 어려운 감정과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영상물을 심하게 의존하는 잘못된 습관이 생겼다.

행복반에서 내 아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룹 참가자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한국 전쟁 시절 태어난 부모님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그들을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반 교재 <뒤늦게 찾아온 행복>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 읽었다니 더욱 와닿았다.

용서의 중요성도 배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발목을 묶고 있던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어머니를 용서했다. 내가 상처받은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행복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주었음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이 내게 용서할 힘과 용기를 줬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전에는 QT가 종교인의 교양 과목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행복반을 수강하면서 QT를 제대로 하게 됐다. OT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뜻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했다. 행복반에서 배운 QT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한 형제에게 새신자 초청예배 참석을 권면하려고 기도 중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형제도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상처와 수치심을 딛고 회복의 길을 걷는 동안 나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내게 좋은 집과 차, 멋진 외모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행복반에서 배운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상처 입은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 것이다. 비록 삶은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미리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EHR(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수료 간증



/ 정후영 성도(스브릿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2단계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 수업을 들었다. 목사님의 영성과 심리학을 통합한 탁월한 강의 전달력과 커리큘럼, 온화하고 믿음 좋은 조원들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신앙을 가지며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거나 그것을 표현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함께 충족하면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다.

이 문제에 관한 뇌 심리학 관점, 감정을 보면서 자기 인식하기, 대화기술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실습할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 계속 수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고, 표현을 안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패턴을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감정을 통해 어떤 욕구가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지도 명확하게 깨달았다. 정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포착해야겠다는 것과 나다움을 더욱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더 친밀해지고, 나를 돌보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또 엄마에게 화가 많이 날 때 공격적인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내가 알고 깨달은 내용은 수업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하며 갖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통찰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내 안에 두려움과 공격성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말문을 듣는 것, 수업을 듣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하고 유연하게 자기조절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부정적인 단서에 집중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감정 목록과 무드미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책을 묵상하고, 워크북을 보면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나와 타인과 더욱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지금은 감정 일기를 안 쓰고 있다. 급한 일정이 끝나면 감정 일기와 감사 일기를 다시 작성할 것이다. 갈등이 있을 때 배운 것을 적용하며 실천할 것이다.

134기 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이교행 선교사(서빙고찬양사역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어머니학교 134기’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나에게 꼭 맞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 신랑이 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미처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고, 어머니학교에서도 큰 사랑과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은 내가 선교지를 나가면서부터 기도와 한숨을 항상 찬양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다. 선교지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이다. 반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골방으로 들어가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울었다. 그렇게 울고 나면 하나님이 내 등을 쓰다듬으시며 꼭 찬양하게 하셨다.

이번 신랑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에 어려움 가운데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비록 많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 나를 두르고 있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뢰하며 신랑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은 어머니학교 스텝 모임을 통해서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 비파팀과 수급팀을 만나면서 찬양의 위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다. 또 어머니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삶과 가족 간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셨다. 가슴과 가슴으로 대하며 내 안에 고갈되었던 사랑을 깨워주셨다. 어머니학교는 나에게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다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음 걸음으로 기쁘게 나아가도록 응원해주는 선물 그 자체였다. 그 귀한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태프 모임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나의 두드림을 거절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옥합팀, 빛도 이름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애써준 편지팀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어미 된 자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 향기 팀장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다. 선교사라는 직분이 버거웠을 텐데도 자매처럼 챙겨주고, 매일 찬양으로 격려하며 기도해 준 비파팀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다.